

# <공연의 영상화 지원사업에 관한 유형 조사> 온라인 토론회 결과

2020.9.9(수)~9.7(월) 진행한 <공연의 영상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>를 토대로 온라인 토론회 진행  
토론 내용은 영상 제작 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, 저작권, 영상 제작, 송출료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.  
※ 아래 내용은 토론자 들의 중론을 정리한 것으로 결정된 가이드 라인은 아님

■ 일 시 : 2020.09.09 (수) 10:00~12:00(예정)

■ 장 소 :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

■ 참석자 : 16명

김병호(극단 즐거운 사람들), 김성수(인형극단 친구들), 김형아(이야기꾼의 책공연), 나숙경((사)하늘에),  
배은옥(동화가 꽃피는 나무), 배재현(극단 조이아이), 서상현(공연창작집단 사람), 서해자(인형극단누렁소), 손혜정(극단 마실),  
송인현((주)극단 민들레), 이정진(국악연구소 현), 임홍석(교육극단 파랑새), 전영준(극단21), 정가람(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아)  
방지영(아시테지), 최서희(아시테지)

## ※ 토론회 결과 자료집 내의 단어 정의

- ① 송출료 :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작품의 사례비
- ② 공연료 : 공연을 한 대가로 받는 돈. 촬영을 위해 진행한 공연을 대가로 받는 돈
- ③ 제작비 : 공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(출연료, 연출료, 무대 기술 및 그의 제반 비용 등)
- ④ 영상제작비 : 촬영 및 편집, 이를 위한 제반 비용

## 1. 주요 내용

### ■ 계약 시 유의 사항

- 기관과의 계약
  - 송출 기간, 횟수 그에 맞는 제작비, 적절한 송출료 책정, 계약서 작성 필수
- 참여자와의 계약 :
  - 참여자와의 계약이 중요(수익이 발생 시를 위해. 사례비 및 참여자와의 수익 배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함)

### ■ 영상제작 시 고려사항

- 제작에 앞서
  - ① 정확한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
    - 공연은 아무리 잘 찍어도 공연의 현장성을 영상에 잘 담을 수 없음. 그래도 영상에 공연을 담는다고 결정했다면 어떤 것을 보여줄지,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디까지 담아낼 것인지,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고민 후 제작 진행  
예) 영상 감독과 첫 회의에서 영상 감독이 “어떻게 찍어드려요?”라고 묻는다면. 뭐라 설명할 것인가.
  - ②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의 이용기간, 영상 퀄리티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음
    - 영상은 제작이 완료된 후, 보안을 위한 재촬영 및 편집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영상 퀄리티의 기준에 대한 타협이 필요

○ 제작과정에 대해

① 연출은 공연에 맞는 영상 연출(기술)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촬영을 시작해야 함

- 무대 미술 : 공연에 맞는 무대미술과 영상 촬영을 위한 미술이 다름
- 조명 : 영상 촬영을 위한 조명과 무대에서의 조명이 다른 점을 파악한 재디자인
- 장면 : 공연을 잘 들어낼 수 있도록 장면별로 클로즈업, 와이드, 바스트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촬영 진행
- 매체 : 안전이 필요할 때 다음 예상할 수 있는 자막 활용 등  
예) 뮤지컬 경우 자막을 활용한 가사 노출

② 공연을 효과적인 영상공연의 런타임을 찾아야 함

- 공연은 공간성을 가지고 관객과 호흡하며 진행하므로 관람하는 시간과 영상 공연에서의 시간은 다름
- ※ 단, 90분짜리 공연이 20분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, 공연료 및 송출료가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특성에 맞춰 함축적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고지해야 함

○ 기타 사항

- ① 영상, 촬영 감독 및 스태프와 편집자의 섭외가 어려운 상황으로 협회 차원의 인력 Pool을 마련 및 지원 필요
- ② 영상 촬영에 대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언어를 찾아가는 도전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간 필요  
- 아시테지에서 이번 주(9/11) 내에 협회원을 위한 영상 특강 진행

■ 송출금액 산출 고려 사항

○ 인식 개선 필요

① 영상 송출은 기회비용이 줄어든 것이므로 영상은 공연보다 높아야 함

- 한 기관에서 같은 작품을 송출했을 경우, 다른 기관에서 같은 작품을 송출하기가 어렵고, 영상으로 공연을 본 관객은 실제 공연을 찾아볼 확률이 낮아짐. 이 부분을 단체가 이해하고 기관에게 개념을 이해시켜야 함.  
예) 무료 온라인 송출에 15,000명이 방송 시청. 이는 300석 규모의 50회 관람 인원이 1회에 관람한 것으로 이후 무대 공연이 진행되었을 때, 기 시청자들의 무대 공연 관람은 매우 낮을 것임.

② 실시간 송출 시 온라인상의 반응 등, 다양한 부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짐.

- 옳 못한 컴퍼니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,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음.

③ 영상은 공연료+영상 제작비가 포함된 가격이다.

○ 송출 비용 산정 사례

① 각 기관에 맞는 재 촬영(편집)을 통해 맞춤형 영상 제작

- 기관만을 위한 촬영(편집)을 진행하므로 공연비와 영상 제작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.

② 기존 제작된 영상송출, 공연료의 50% 측정

- 무대 공연이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된 후 기관은 최초 측정된 공연료의 50%만 입금, 이후 비슷한 사업인 경우 공연료의 50%로 진행함. 단, 시청 대상은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(신청 인원 사전 협의)로 폐쇄 링크로 진행

※ 영상에 무단배포 금지 문구 삽입

※ 배우 스태프 사례비도 측정된 요율(50%)에 비례하여 진행

③ 단체 내 공연료+송출료 가이드 사례

- 공연 진행 시 공연료가 100만원이며, 자원처에 따라 영상을 별도 제작 시

	비율		금액		합계
	공연료	송출료	공연료	송출료	
1회 송출	100%	-	100	0	100
2회~5회 송출	50%	50%	100	100	200
6회 이상	30%	70%	100	233	333
무제한 소유	20%	80%	100	400	500

■ 저작권에 관한 내용

- 영상을 제작한 곳이 영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
  - 영상제작을 진행할 때, 제작의 주체를 단체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
  - 계약서상에 공연료에 영상 제작비를 포함시켜 영상 송출 권한을 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방책 마련
    - ※ 영상 송출은 영상 저작권자의 일관성 관리로, 희소성을 높이고 이미지 훼손의 최소화도 중요
- 영상제작 시 저작권에 대한 점검 필요
  - ① 기존 레퍼토리 작품의 저작권 상세 점검이 필요
    - 음악 외에 영상, 무대디자인 등 세세하게 점검 필요
  - ② 소설, 동화 등 1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공연화 될 때와 영상화 될 때 조건이 다를 수 있음
    - 영상화가 될 경우, 저작권료의 요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음
    - 영상화를 위한 2차 저작물 매니지먼트는 공연과 별도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
- 저작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,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
  -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장 예술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